

## 129. 예수님, 이 모든 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에요.

2015.09.10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제가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해요. 저는 치통이 있고 오늘 아침에 치과에 갈 예정이니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린이가 되는것. 왜 저희는 모래 놀이장에서 싸우는 걸까요?? 오.. 이것은 정말 놀라워요.

주님께서 오늘밤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사실 저는 오늘 밤에 기도와 찬양을 드렸고 주님은 정말 달콤하고 정말 저에게 주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이 주신 지난 두 메시지에 대해 청취자들 중 일부가 소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주님을 대신하여 정말 제가 한마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느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드릴 작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주님은 그 끝에 약간에 메시지를 더 추가하셨어요.

저는 주님을 방어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중 일부는 지난 두 메시지에 대해 저에게 얼마나 실망하였는지 언급하였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제가 듣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을 제외한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사과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인터넷에서 유일하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과 나누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가진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 듣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오직 유일한 예외는 라나 바우저(Lana Vawser)예요. 주님은 제가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그녀의 최신 메시지 중 하나를 들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가서 찾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제가 유일하게 진실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어떻게 저를 비난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제가 말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기름부음 받은 유튜브 채널을 찾아서 그곳에 머무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신을 많은 혼란으로 빠지게 할거예요. 저는 지금 추측 해봐요.. 많은 유튜브 채널에 제안되어진 많은 시나리오들이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중 하나를 알아요. 저는 소문을 통해 그것을 들었지만, 저는 그 정보를 가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정보를 저에게 공유하지 말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이것이 무언가 여러분에게 명확해지게 했기를 바래요..

그리고 저는 붉은 달이 중요하지 않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은 자신의 말이나 아이디어, 혹은 제가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고 추측하는 것을 넣어서 제 메시지를 들어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붉은 달은 매우 중요해요. 특히 축일에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때에 세상에서 다양한 일이 일어난 일들에 대한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이 아주, 정말, 매우 중요하다고 전적으로 확신해요.

제가 믿는 것은 제가 들은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기대를 상자에 넣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존재 자체의 나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어? 아니면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만들어졌어?' 주님은 신이고, 주님은 주권자 예요. 주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기뻐하는 것을 하실 것이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저희에게 상담하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이야기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깨달으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님이 저희에게 다시 힌트들을 더 주셨다면 저희는 매우 운이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메시지들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주님과 함께 이야기해보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이 유튜브 채널을 듣지 않으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제가 이것들을 다 꾸며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를 잊어버리시고 여러분이 믿을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누군가를 찾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저를 불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취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저의 메시지가 아니고 주님의 메시지에요. 그러니 제발.. 마음을 정해주세요.

이 채널은 무엇보다도 주님과 친밀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주님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에요. 양방향 의사소통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예언하는 채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선지자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저는 신부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전부예요!

좋아요, 저는 일부 사람들이 제가 그들의 희망을 가져갔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고려해 보시기를 원해요. 주님은 저에게 몇 달을 말씀하셨고, 휴거는 몇 달이 미루어 질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몇 년이 아니라 몇 달이요.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두 달 이상'을 의미해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 절망적인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한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이 생각하고 고려해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그의 백마를 타고 휘장을 뚫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의 주변에는 천국의 군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주님은 쇼파(뿔피리)를 부르실 준비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대한 어둠 속에 있는 한 영혼이 주님에게 부르짖으며 주님의 관심을 사로잡았어요. “제발, 하나님 저에게 당신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발요. 저는 저의 가족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만약 그 기독교인들의 말이 맞다면, 제발, 하나님 자신을 저에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구상의 다른 곳에서 주님은 헤로인(마약)을 한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도움을 간청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 제발요. 저에게 또 한번에 기회를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좋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두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매일 수천명의 사람들이 주님에게 부르짖어요. 그리고 이 불쌍한 영혼들을 한 번만 바라봐도 구원자 주님의 마음이 감동하세요.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는 주님의 신부들을 주님이 쳐다보시면서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천국을 누릴 영원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이 한 영혼을 위해 멈추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절대로 빛을 보지 못할 거예요. 절대로요. 절대 다시는요. 그리고 그때문에 주님은 휴거를 취소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더 많은 천사들을 지구에 보내세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저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주님의 소망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희망은요? 그들은 어떻게 하구요? 제 뜻은, 이 사람이 무슬림일 수도 있어요. 지금 수백명의 무슬림들이 그들의 무슬림들의 잔인함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 무슬림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위해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시간은 조금 더, 어쩌면 2주더 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이러한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알겠죠? 좋아요.

주님, 주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아니, 너가 말을 잘 한 것 같아. 너희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나에게 요청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많은 인내를 달라고 왜 요청하지 않아? 나의 신부들아, 그러면 우리 둘 다 행복할 거야. 그래, 더 많은 인내를 나에게 요청해라. 이 기도에 내가 응답할 거야. 이 노래에 나의 마음을 가장 가슴에 사무치게 표현하였어.

노래

예수님, 이 모든 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 이 모든 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에요.

당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한 것이지 이것은 저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마치 당신이 제 길에 하신 일들처럼 당신만이 홀로 하나님 이시니

저는 당신의 길에 순종합니다

예수님, 제 영혼의 연인

모든 타오르는 불꽃은 당신의 시선 안에 있어요. 예수님, 저는 당신을 알기 원해요

저는 저의 일생동안 당신을 따르겠어요.

역사상 당신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역사 그 자체가 당신께 속해있죠.

알파와 오메가이신 당신이 저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저는 영원을 당신과 나눌거예요.